

주간 이슈 리포트

45 호

2004년 6월 첫째주(5/31 ~ 6/5)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국민연금 돌풍
- 노동자 세상:	사회공헌기금
- 통신정책:	남북 통신망 연결
- 정자동 6층에서	위원장 방북기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국민연금 돌풍'에 온 나라 들썩

국민연금 고갈설부터 8가지 비밀에 이르기까지 국민연금 폐해가 급속이 퍼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국민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에게도 매달 떠는 국민연금을 보면서 솔찬히 많다는 부담과 함께 과연 저 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을 품곤 하였는데, 영세업자들은 이만저만 부담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 힘주어 동조하지 못하는 문제제기의 배후에 사보험의 숨은 흥계가 있다는 말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의도가 있든 없든 현 국민연금제도는 당사자인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희망하기는 그래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보완 개선되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미디어 오늘'에서 일부 내용을 퍼왔다.

(전략)

'안티 국민연금'이 온-오프 할 것 없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국민연금의 비밀'이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네티즌들의 퍼가기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안티 국민연금' 움직임은 청와대를 비롯,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시위까지 이끌어낼 태세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의제설정에 있어 인터넷의 위력을 재삼 확인케 하고 있다.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확산된 이 문제는 뒤늦게 기성언론에 기사화되기 시작했으며 국민연금공단측은 공식해명 책자를 발간하고 네티즌 주장에 일일이 댓글을 다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5일 네이버(www.naver.com)의 토론장에 'mariavet2000'이라는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리면서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예를 들어 제시하겠다고 8가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상으로도 맞벌이 부부가 퇴직 후 연금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거나 소득 있는 퇴직자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미납하면 해당액만큼 차압하는 등 수급권 제한과 까다로운 수급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네티즌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를 사이버상에 퍼뜨리기 시작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사례들을 제보하고 사이버시위에 나섰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채비까지 갖추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을 ‘궁민연금’으로 바꿔 부르며 좀처럼 분노를 식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비롯, 청와대,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비난·비판이 하루 수천 건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과장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라는 12페이지에 걸친 설명서를 내걸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2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 제도를 이해하고 국민 설득에도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적지 않게 올랐으나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보험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대부분 잘못된 문건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의 비밀>에서 제기한 8개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가입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엇이 진실 인지를 밝히고자 안티즌(안티 네티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바로알기’와 ‘참고자료’를 덧붙였다.

한편 당초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려고 했던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방안은 이번 핵폭탄을 맞아 국민연금 수급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7일 결정됐다. 그러나 부부가입자의 병급 조정 문제와 미납시 재산압류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데다 이번 개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의 열띤 사이버 시위에 이어 오프라인 상에서도 촛불시위가 등장할 태세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과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는 지난 24일부터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청와대 게시판 사이버 시위’와 ‘네티즌 모금운동’도 벌이는 한편 촛불집회를 제안한 네티즌의 제안을 공지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음주 중 감사원에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

를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대정부 소송카페(cafe.daum.net/DiedPension) 등 안티 국민연금관련 사이트 등에서도 촛불시위 참가를 다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국민연금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중략)

포털사이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폴에서도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 지지율이 80%를 웃돌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다음(www.daum.net)의 즉석투표에서 28일 오후 1시45분 현재(7929명 참여) ‘지지한다’고 클릭한 사람이 87.2%(6915명)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2.8%(1014명).

야후(www.yahoo.co.kr)도 지난 18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의 확산에 대한 의견을 물어 같은 시각(8만5534명 참여) ‘찬성’이 88%(7만5549명)로 ‘반대’(10%, 8716명)를 크게 앞질렀다. ‘관심없다’는 1%(1269명)이었다.

18일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은 네이트(www.nate.com)의 온라인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91.82%, 2만4303명)가 ‘훌륭한 노후 보장책’(6.14%, 1624명)을 압도했다. ‘관심없다’는 2.05%(542명).

특히 각 포털사이트는 이슈토론 등의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 의제설정과 폭발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

사회공헌기금, 비합리적인가?

☞ 지난 4월 22일에 자동차 4사노조에서 회사의 순이익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여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연구기금, 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금 등에 활용하고자 제안하였다. 이 사회공헌기금 논란이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공론화하자고 하면서 사회 이슈화 되고 있다. 물론 사용자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이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노사정 위원회 이훈 전문위원의 의견을 퍼왔다.

지난달 하순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등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4개 완성차 노조들이 회사별로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여 공동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굵지 않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해 보인다.

비판은 여러 가지이다. 기업이 순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노조 권한 밖의 문제로 노조가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는 것이 첫째다.

이윤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가의 예측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노조가 이윤의 강제적인 사회 환원을 제안하는 것은 기업가의 이러한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비판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이 기금이 완성차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보전이나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고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인만큼 완성차노조가 회사의 이윤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들이 설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완성차노조들의 제안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완성차 노조의 기금 조성 요구가 제조업공동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의 글로벌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화를 회피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지켜내고 또 새로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즉 보급형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지 생산을 기본으로 글로벌한 생산거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생산거점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신산업, 신기업, 신제품 중심으로 구축하여 국제분업체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성차 노조는 단순히 비용절감 위주의 가격경쟁력 추구가 아니라 ‘노동의 질’ 제고, 즉 인적자원의 개발과 축적에 기반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전략적 선택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구성원인 노동자와 노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완성차노조들이 기금조성 요구를 통해 스스로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로 그 의미가 큰 셈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관련된 문제를 짚어 보자. 자동차업종을 비롯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내하청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고용유연성의 확보,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관련법규의 적용 회피를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 고용관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규제 회피 등 사용자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어 온 것은, 그 배경에 노동조합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여 수량적 유연성 전략을 기업들이 취해왔기 때문이다.

금속연맹은 올해 임단협 지침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수준 이상 지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완성차노조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기금 활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점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신규인력의 양성이나 인력의 재배치와 관련된 업종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지역복지센터의 설립 등에 맞추어져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사내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의 남용과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노동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완성차노조들의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에서 노사파트너십에 기반한 산업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훈(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북 통신망 연결'은 IT교류 촉진제

☞ 통일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의사소통이고 이를위해 남북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촉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로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KT의 의미와 역할은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마 KT 노동자들 모두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동안 마음 속으로 기대해 왔던 남북 통신 교류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땅에서 네트워크를 시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KT노동자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남북 당사자 실무 회의에서 합의한 통신교류 내용을 전자신문에서 퍼왔다.

비무장지대(DMZ)를 가로 지르는 남과 북의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남북은 지난달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오는 9월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시범단지 안의 사업자를 위해 유선 100회선, 이어 개발될 1단계 100만평 본 공단에는 1만회선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남북의 합의로 연결된 광케이블이 비록 개성공단까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이어 통신망까지 연결키로 한 것은 남북 IT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광케이블만의 연결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남북 간 IT산업과 통신, 문화, 예술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00년 8월 판문점에 전화 300회선, TV 1회선, 문서, 음성·영상 등 데이터 통신 5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광통신망을 가설했지만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개성 전화국 사이의 광단국 장비 설치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연결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번 광케이블은 이미 남측 경의선 도로를 따라 군사분계선까지 지중매설을 마친 상태므로 북측 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광케이블 연결과 관련, 남북 간에 통신시설의 운영문제와 지중매설작업 등과 관련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 북측 구간에 대한 광케이블망 연결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제공은 사업자인 KT가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한 바 있어 이견만 해소되면 신속한 연결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광케이블 연결공사가 가능한 빨리 진행돼 양측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일체감 형성을 통해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남북한 경제협력과 특히 IT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있지만 남북한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경제분야고 그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IT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IT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상생의 현실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양측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IT기술수준은 지난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미 'IT강국-코리아'라는 인식을 세계에 과시한 만큼 북측의 인적자원과 남측의 IT기술을 합치면 양측의 투자 승수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IT분야 표준화, 수익모델 개발, 투자 장애물 제거, 정부 및 민간강비의 협력 지원방안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IT분야에 달려 있고 통신망의 연결 없는 IT교류는 남북의 협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일이 IT산업을 비롯한 분야별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의 틀 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



통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긴 북녘 여행

☞ 지재식위원장께서 4월 30일 남북노동자 통일 행사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계기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우리 KT노동자를 대표한 위원장의 시각으로 정리한 방북기이기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기에 정자동 6층에서 독점게재(?)를 하였다.

평양으로!

4월 30일 6시 4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같이 출발할 일행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방북단들은 설레는 모습들이다. 취재진들의 취재모습도 보인다. 취재진 중 한명이 나에게 방북소감을 묻는다. 출발 직전의 지금의 소감을 말하란다. 그래서 별다른 느낌없이 담담하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남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담담했다. 보통의 외국 여행을 떠날 때보다 담담했고 별 감흥이 느껴지질 않았다.

모든 탑승수속을 마치고 10시 20분경 평양으로 향할 대한항공편에 올랐다. 기내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이들처럼 들떠있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기내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출발 직전 국내 취재진들과 방북동행취재진들의 취재모습이 부산했다. 국내 취재진들이 내리고 비행기는 북을 향해 출발했다.

서해바다의 모습이 보이면서 담담했던 마음은 약간 들뜨기 시작했다. 방북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또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북에 대한 특별한 상상을 해보질 않았다. 그래서 담담하고 별 흥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북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궁금해지고 외국 여행할 때 공항에 도착할 즈음 느껴지는 흥분과 호기심보다 훨씬 큰 설레임이 찾아 들었다. 평양 순안공항이 가까워지면서 북한 땅이 육안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흥분이 고조되었고 산과 들이 가까이 보일 때 쯤에서야 비로소 차분해짐을 느끼기 시작한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차분해지는 것이다. 순안공항 상공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남에서 들었던 것처럼 조금은 황폐한 모습이었고 공항자체의 모습은 내가 가봤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항모습과 흡사했다. 공항 시멘트 활주 도로가 주는 느낌이나 한산하고 낡은 주변의 모습들이 몽고나 베트남의 하노이 공항에서 받은 느낌과 비슷했다. 순안공항에 완전히 도착했을 때 공항 광장에는 전에 TV를 통해 여러 번

보았던 똑 같은 모습과 표정을 하고 있는 환영군중들이 방북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양의 첫날

이제 북한땅이다. 간단한 환영행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와서 처음 접한 북한의 모습은 그동안 들어왔던 데로 넓고 허름한 건물들의 모습, 그리고 조금은 남루한 사람들의 모습, 어쨌든 썩 경쾌하고 밝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내 순안공항을 출발해서 평양시내를 거쳐 숙소인 양각도 호텔에 도착했다. 처음 접한 평양의 모습은 낡긴 했어도 잘 정돈되고 차분한 도시로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어 주는 주민들의 모습도 선해 보이고 표정도 밝아 보였다.

양각도 호텔은 지금으로 보서는 그리 훌륭한 시설이라 말할 순 없었지만 건축 당시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대단한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호텔로 보였다. 객실의 수준은 보통이었지만 호텔의 위치가 대동강 가운데에 위치한 섬인지라 객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치는 당연히 아름답고 시원스러웠다. 호텔내의 엘리베이터의 가동이나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들은 북한의 부족한 전력사정을 말해주었다. 사실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그 유명하다는 평양냉면을 기대했는데 점심은 양각도호텔에서 제공되었고 뷔페식이었다. 북한의 전통 또는 전형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그리 입에 딱맞는 음식은 아니었다. 사실 난 음식 비위가 유난히 약한 편이다.

점심식사 후 김일성 주석이 태어났다는 만경대를 둘러보았다. 북한의 이런 시설물들이 당연히 김일성 주석 부자의 신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듯 주변의 모습은 아주 잘 가꾸어져 있었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만경대에 있는 소위 관람 인파였다. 평상시에도 관람객으로 북적인다는 북측의 설명이 있긴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았고 특별히 동원했지 않으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보기엔 그들이 보여준 극진한 환영의 모습이 아직은 웬지 그리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와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만경대 관람 후 학생문화궁전에 들렀다. 소위 학생소조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남한의 방과 후 특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영재교육시스템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관람했는데 실수하나 없는 완벽한 공연이었다. 이곳 학생문화궁전에서 연습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또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당연히 대단하고 놀라운 기량이라는 것과 씩씩하지만 이걸 예술이라기 보다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다. 이곳을 둘러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답답했고, 웃는 모습이건 우는 모습이건 아주 어린시절부터 훈련된 한결 같은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평양단고기집 이곳도 남한에서 소문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 단고기 하면 남한의 보신탕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개고기였다. 개고기 음식을 고급화, 코스화시킨 요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었고 북에서는 고급 축에 드는 음식인 것 같았다.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고 고급이라 함은 보통 때 북한 주민들이 먹는 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북측 안 내원들의 말에 의하면 단고기도 수시로 자주 즐겨먹는 음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았다. 아무튼 입에도 맞고 맛도 괜찮은 개고기 코스요리였다.

호텔로 돌아온 후 북한에서의 첫날밤을 그냥 보내긴 아쉽고 해서 안내원동지를 설득해서 북한의 밤문화를 접해 보려고 일행중 누군가가 시도해봤다. 밤문화라고 해야 기껏 평양 시내에 있는 선술집, 즉 보통 북한 주민들이 가는 술집에 가보자는 거였다. 그러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포기하고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바에서 우리 연맹 동지들과 간단히 가스맥주(생맥주) 한잔씩 하면서 하루를 정리했다.

평양에서의 둘째날

5월 1일 노동절이다.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4 북남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치러지는 곳은 대동강변 능라도 5·1경기장 근처의 잔디밭이었다. 호텔을 출발해서 행사장에 가는 동안 펼쳐지는 평양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일행들과 여러 차례 나눈 얘기지만 옛 선조들이 도움을 한 이유가 충분했다.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 있는 평양은 서울과는 달리 잘 정비된 계획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낡은 것 빼고는.....

행사장엔 북의 참가자들이 먼저 와있었고 북한의 중앙통신도 생중계 준비에 여념이 없다. 노동절 행사가 치러지고 남·북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린 줄다리기, 마라톤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점심은 남북의 노동자들이 반반씩 섞여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들어보니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사람도 있고 남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는 이도 있고 하여튼 조금은 어색하게 출발했지만 맥주가 한 순배 돌아가면서 분위기는 나아졌다.

노동절 행사를 마치고 그 유명한 을밀대를 구경했다. 오늘 노동절이 휴일이기 때문에, 을밀대를 가는 도중이라 건너편 대동강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있던 쪽의 대동강변은 한가했지만... 을밀대에 도착했을 때는 평양 제1의 공원답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환영하는 모습이 열광적이거나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하여튼 상상 이상의 나들이 군중들의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너무 열광적으로 환영하다 보니 거꾸로 자발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오해마저 생겨, 씩씩하기도 했다.

저녁 만찬은 그 유명한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내각 총리의 주최로 치루어졌다. 음식은 당연히 최고급으로 차려졌고 맛도 있었다. 대부분의 방북단들은 흥겨운 모습들이었고 방북 이틀째인 만큼 자유스럽고 편안해진 모습들이 역력했다. 나도 물론 술도 많이 마셨고 나와 함께했던 직총의 중앙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선 한사코 감추려는 모습들이 엿보이고 때로는 과장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느꼈다.

이튿날 밤을 맞이했다. 호텔내의 편의시설을 일행과 함께 이용해 보기로 했다. 사실은 어젯밤에 탐색을 해놓은 것이기 하지만... 거금을 주고 북한의 호텔에서 사우나를 하고 얼굴마사지를 받고 전신마사지를 받았다. 북에서도 자본주의 행태인 이렇게 상업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느낌은 없었다. 비용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북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 북한 평균 약 5개월 정도의 월급이니까...

묘향산과 주체사상탑

3일째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관람관을 돌아봤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선물의 양도 놀랍고 종류도 대단하고 전시관은 마치 루브르나 대영박물관을 연상하는 규모로 대단히 놀랍다. 오늘 늦게 돌아본 주체사상탑을 보면서 느낀 점과 비슷했다. 일행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소한 두 시설을 보면서 규모에 놀라면서 사실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이 전시관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의 끈공함을 이해한다면, 이렇듯 거대한 규모의 전시관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아쉬움이 가시질 않는다.

묘향산은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곳이어선지 다른 대부분의 북한 산들이 민둥산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잘 보존되고 가꾸어진 산이었다. 그림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명산이었다. 평양에서 약 130Km 떨어진 묘향산을 가면서 차창을 통해 멀리서나마 북한의 농촌과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평양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북한의 농촌은 확실히 궁핍하고 낙후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선문과 주체사상탑을 들렀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담은 개선문과 북한 주체사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주체사상탑은 규모가 웅장하고 건축미 또한 돋보이는 것 같았다. 다만, 김일성 주석에 대한 지나친 칭송이 아직 내게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다시 서울로

북에서의 마지막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프예블로호도 견학하고, 맥주공장도 견학

하고 기대했던 옥류관의 평양냉면도 먹었다. 냉면은 기대가 컸던 탓인지 사실 입에 맞지 않았고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다시 평양시내를 가로질러 순안공항으로 왔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방북을 통해 물론 많은 걸 느끼고,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간에 언론을 통해 보고 들었던, 어린 시절에 배우고 익혔던 북한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겐 행운이었고 고마운 기회였다. 당연히 이번 방북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열망도, 또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고민도 하게 되었고 전보다는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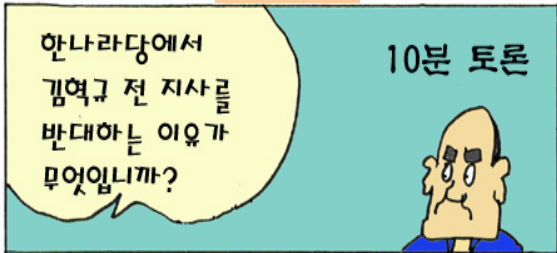
내가 느낀 통일의 단상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차이를 극복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통일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등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과 약점이 공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우월성만을 강조할 때 또는 불합리성만을 강조한다면 통일은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재식(KT노조 위원장)-

만

화

방



정책기획실에서 주관하여 발간하던 주간이슈리포트가 업무 집중과 활성화를 위해 45호를 마지막으로 맺음을 하고, 46호부터는 교육선전실에서 주관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애정을 바랍니다.